사랑하는 보내는 선교사님들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전도서 3장의 때를 계절로 느끼며 동역자님들께 평안으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편지에 기도부탁을 드렸던 동역자 가정의 기도제목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도시에 이사 온 협력자 가정은 잘 정착하여 거주증을 받았고, 저희 단체 동역자 가정도 형제는 한국에서 눈 수술 이후에 차츰 회복과정에 있고 한국에서 노동 비자를 받고, 이 땅에 잘 입국하여 가족들 거주증을 신청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동역자님들께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U 부인과의 에게해 근처의 D 소도시의 휴가에서는 U 부인의 딸과 지인인 50대의 미혼 여 변호사 S의 집에 머물면서 여러 방면으로 대화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종교에 관심이 많은 S는 회교와 카톨릭, 기독교에 대한 서적들을 읽어서 다양한 종교 지식을 가진 개방적인 회교도였습니다. 또한 그곳의 버스에서 만난 여성회관? 담당자는 대화 중에 제가 한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에 그곳에 와서도 특강을 해 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받아서, 지방 도시의 한식 특강을 계획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름의 문화원 한식경연대회 행사도 잘 마쳤고, 참여한 한복 수강도 잘 마치면서 천으로 재봉틀을 통해 무엇을 만드는 새로운 취미가 생겼습니다. 지난주부터 화, 목, 토요일은 한식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연결된 대학의 조리학과와는 너무 많은 일에 관련되지 않으려고 조리서 출판에 참여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있지만, 학부 학생들의 요청으로 이번달에 1주일에 한번 금요일 오전에 4주간만 우선 기초반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학은 외곽에 있고 이론과 실습 모두 6시간 정도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많은데, 주께서 지경을 넓혀 주시는 기회인지 잘 분별하여 감당하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달 11일~31일까지 저희 단체장과 3명의 간사들이 이 나라의 도시들을 방문할 예정이며, 제가 있는 도시에는 13~16일까지 머무는 일정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11월 5~11일까지 이웃나라의 모임에 참석할 예정으로 준비하는데 안전과 충전의 시간이 되도록 강사님과 모임 준비하는 단체와 프로그램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나라의 정치와 상황들을 편지에 쓸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며, 한국에서 방영되는 이 땅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기도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9/23, 9/30 Jtbc 다큐 플러스 – 사이먼 리브와 떠나는 터키 여행)

 주님의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제가 나누지 못하는 기도제목과 교제하는 영혼들인 H 부인 가정, 12월에 출산을 앞 둔 N, U 부인과 딸, 이웃집의 S, 사랑하는 동역자님들의 기도 제목들도 주께 의탁합니다.

 2018. 10. 2. 김에스더 드림